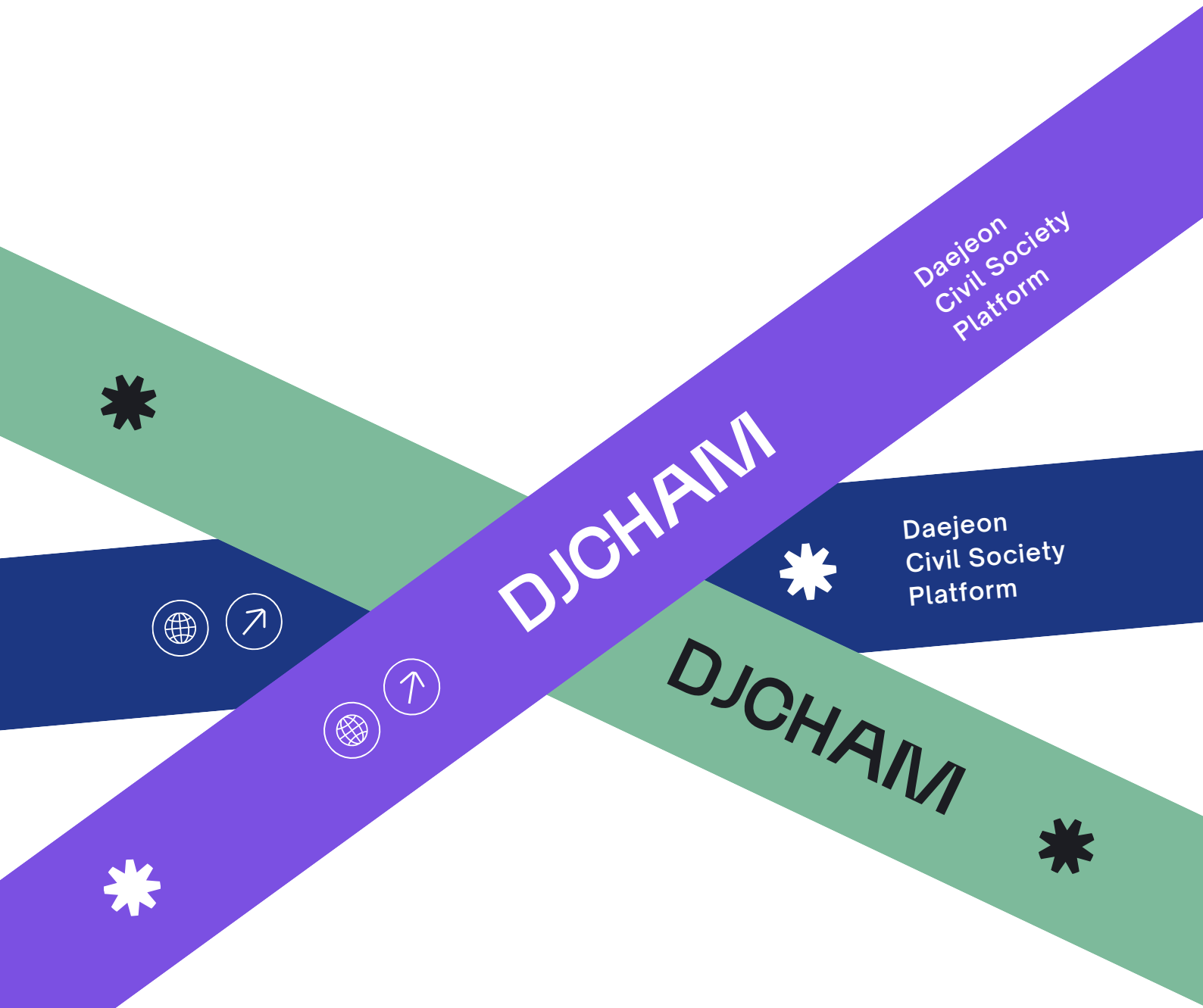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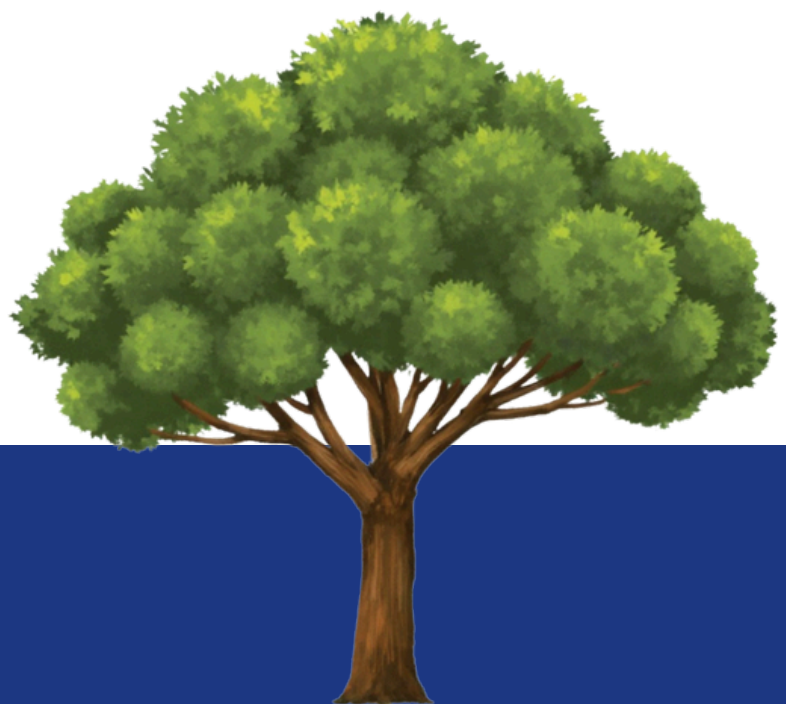
함께 심는 연대의 나무, 따로 또 같이 자라는 숲

대전 시민사회 플랫폼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 기금 프로젝트



공동대표의 인사	02
2025 활동 돌아보기	03
2026 활동 미리보기	05
새 보금자리, 취지와 비전	07
함께하는 단체	08
새 보금자리 마련 보고	09
공간 조성 기금 안내	14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김병구, 이정림, 최정우입니다.

3년 전, 저희는 오랫동안 자리잡았던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을 떠나 용문동으로 이사하면서 작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해온 단체들이 한 공간에 모이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시도였습니다. 대전복지공감,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공동체 숲. 다루는 문제도, 만나는 시민도 저마다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숨 쉬는 거점을 만들어보자는, 오래된 고민에서 비롯된 시도였습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4개 단체가 복작복작하며 지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며 나눈 짧은 안부가 공동 성명이 되기도 했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돌보는 관계도 형성되었습니다. 각 단체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응원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창립 31주년을 맞아, 오래도록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언제든 찾아오고, 복지과 노동과 교육과 인권의 목소리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오랜 주춧돌이 되어주신 회원님들과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딛고 싶어, 3월 30일 오늘 홈커밍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빛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 우리는 주저 없이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4개월 간의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차가운 손을 맞잡아주던 회원님과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가 있었기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DJCHAM

행정의 문을 열어 권리를 지키고, 투명의 가치를 세웠습니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3581 정보공개거부처분위소
원고, 피항소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2053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정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려 2년 6개월간 이어진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부분 승소하여, 대전시 민간위탁기관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비공개로 일관하던 대전시 행정 에 제동을 건,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맛집지도

검색결과 185 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민 감시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예산 감시 페이지 'MONI'에 이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매년 진행해 온 분석 활동을 흥미로운 시민참여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감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Daejeon Civil Society Platform



창립 30주년,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작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200여 명의 회원님과 함께 따뜻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정겨운 인사를 나누었던 그 시간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30년의 역사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방적 행정통합,
시민의 힘으로
멈추고
광역연대라는
대안으로
자치와 상생을
실현합니다**

시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행정통합의 독주를 막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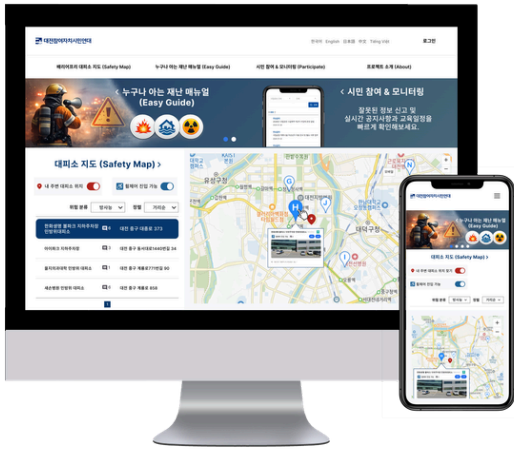
'지방소멸 대응'을 명분 삼아 시민 속의 없이 몰아붙이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도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투표를 생략하려는 독단적 행보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와 공론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정치권의 일방적인 속도전이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없음을 증명해낸 것은 오로지 시민과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감시와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행정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광역연합·연대'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통합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을 넘어, 행정 구역을 합치지 않고도 교통, 환경, 복지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광역연합' 모델을 시민사회가 먼저 설계하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이미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실무 중심의 연대 체계를 구축하여, 충청권 전체 협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2026 지방선거, 광역연대 의제를 정치 아젠다로 만들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우리가 설계한 광역연대 모델을 현실화할 핵심 기회입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광역연대 정책 패키지' 공약화를 요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결정권이 보장되는 정책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멈춰선 통합 논의를 넘어, 시민이 주도하고 정치가 응답하는 실질적인 자치와 연대의 시대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열어가겠습니다.



**재난의 위험 앞에
소외된 이가 없도록,
모두의 안전 지도로
평등한 내일을 만듭니다**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대전지역 이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배리어프리 재난 안전 정보망'을 구축합니다.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휠체어 접근 가능 대피소 DB와 다국어 재난 대응 콘텐츠를 담은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 정보를 누리는 제도적 환경과 조례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DJCHAM

Daejeon Civil Society Platform

띠모크라시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띠방선거 후보자
띠-터뷰**



**공약은 꼼꼼하게, 검증은 날카롭게
대전의 내일을 시민이 결정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8기 공약 이행률과 후보자 재산 내역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특히 후보자 직접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청년정책 모니터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례 개정을 요구하여 이번 선거가 대전의 변화를 만드는 실천의 장이 되게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다로 또 같이, 대전 시민사회의 새로운 연결 거점

경계를 허물고 동력을 나누는 ‘시민사회 공유 플랫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우리 단체만의 공간을 넘어, 대전의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들이 함께 호흡하는 연대의 거점입니다. 개별 단체가 겪는 공간과 자원의 제약을 해소하고, 서로의 활동이 교차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동의 일터이자 든든한 사랑방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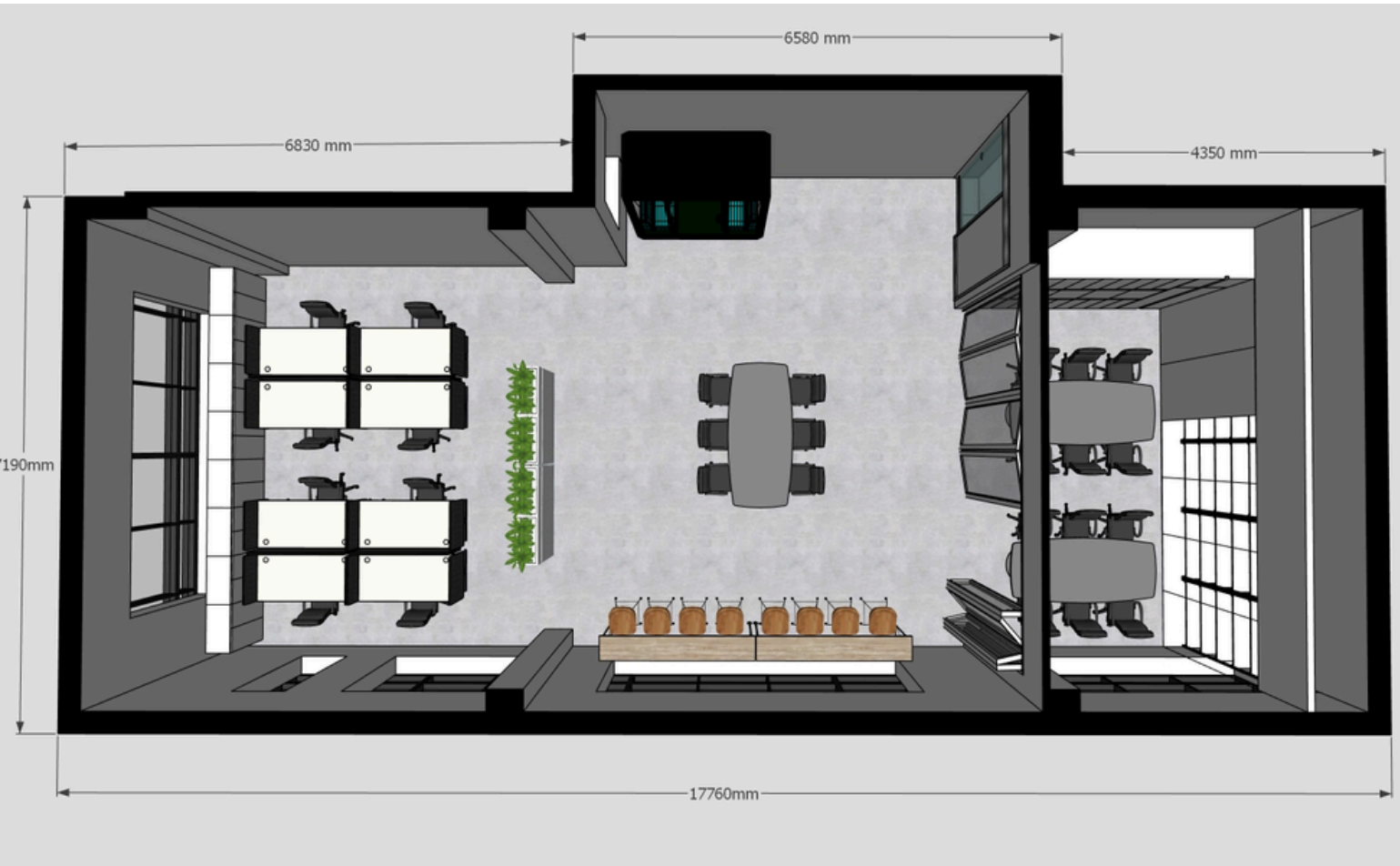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가 대안이 되는 ‘민주주의 실험실’

이곳은 행정통합 대응, 재난 안전망 구축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가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는 숙의의 광장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오픈라운지와 회의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바꾸는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단체 간의 벽을 허물고 대전 시민운동의 내일을 설계하는 이 공간에서, 시민과 활동가의 걸음이 모여 대전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일구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권력 감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참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대전복지공감**
 - 복지 공공성 확대와 시민 참여형 복지 운동을 지향하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익과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씁니다.
- **인권교육공동체 숲**
 - 일상 속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현장 중심의 인권 가치를 확산시킵니다.

-
- **대전참교육학부모회**
 -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과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 권리를 위해 활동하며, 입시 위주 교육을 넘어선 참교육을 지향합니다.
 - **라이더유니온 대전지회**
 -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대안 담론을 형성하고, 실사구시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시민운동의 토대를 닦습니다.





1. 새로운 공간 개요

- 규모: 전용면적 40평
- 특징: 시세 대비 유리한 조건의 급매물 확보로 중장기적 활동 안정성 마련



2. 위치

- 대전 서구 문정로 148, 6층 601호 (탄방 119 안전센터 인근)
- 오시는 길



3. 현장 사진

- BEFORE



3. 현장 사진

- AFTER



4. 추진 일정

시기	주요 내용
2026.02.	급매물 확인 및 대표단·사무처 긴급 논의, 매매계약 체결
2026.03.	공간 사용 목적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 진행
2026.04.12.	이사 실행
2026.04.13.	잔금 지급 완료 예정
2026.04.28.	공간 개소식 (창립 31주년 기념일)

5. 공간 조성 및 이사 비용 추산

구분	세부 내용	예상 비용	비고
인테리어 공사	에어컨 설치	700	냉난방기
	전기 공사	300	
	도장 공사	300	
	바닥재 시공	200	
	폴딩도어 설치	300	회의실 공간 분리용
	목공사 및 방충망 시공	200	
	간판 및 사인물	100	
사무 집기	사무용 가구 및 가전	700	싱크대, 냉장고, 테이블, 전자칠판 등
이사 및 기타	이사 비용	200	이전 및 정리 비용
합계		3,000	

연대의 희망 나무 기금 안내

구분	금액	인원	소계
뿌리 기금	200만 원	5명	1,000만 원
줄기 기금	100만 원	10명	1,000만 원
가지 기금	50만 원	15명	750만 원
잎새 기금	30만 원	15명	450만 원
열매 기금	10만 원	20명	200만 원
합계		65명	3,500만 원

- 뿌리 기금
 - 우리의 보금자리가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땅속 가장 깊은 곳을 받쳐주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 줄기 기금
 -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성장의 기둥입니다.
- 가지 기금
 - 플랫폼의 이야기가 대전 사회 전역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돕는 나눔의 길목입니다.
- 잎새 기금
 - 이 공간을 숨 쉬게 하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푸른 그늘을 완성하는 생명력이 됩니다.
- 열매 기금
 - 연대가 맺어낸 소중한 결실이며, 시민사회에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전하는 달콤한 나눔의 실천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키워온 연대가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누구나 함께하는
다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대전 시민사회의
튼튼한 나무가 되어주세요.



하나은행

622-910032-50005



농협

301-0083-3400-61



문의 전화

010-9355-3697(김재섭 사무처장)